

2014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9.25(목) 15:00~16:3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 8월 30일 방송된 인문단체 '시민행성' 월정사서 인문캠프 기사에 인문학 공동체인 '시민행성'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인문 캠프를 연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민행성'이 무엇인지 생소하기도 하고 인문캠프의 취지나 목표, 교육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없어서 뉴스의 의미가 다소 떨어졌음(성낙용 위원)
- 최근 자사고 지정취소와 학교등교 시간을 9시까지 늦추는 문제 등 우리사회에 이슈가 된 문제의 보도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시청자들에게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보도가 필요함(김용주 위원)
- 17일 대한항공 승무원 성추행 관련 내용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진에어에 비해 성추행 많다는데, 분모(전체 승무원 수 및 운행노선 규모 등)를 같이 검토해야 정확한 분석. 기업 이미지에 영향 미치는 만큼 보다 정교한 분석 필요함(이용우 위원)
- 인천 아시안 경기가 진행 중이나 뉴스Y보도를 통해 인천 아시안 게임운영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사실을 알게 됨. 아시아인의 축제이나 역도 선수를 위한 탈의실은 컨테이너 가건물에 창문이 투명해 속이 다 보이고, 자원봉사자는 본분을 잊고 유명선수 사진촬영에 집중하며, 심지어 관계자들 식사 도시락조차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이라는 보도는 국민을 실망시키기 충분함. 이러한 보도 자체는 게임 운영자 측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보도가치가 높다고 평가함. 다만 이와 같이 부실한 대회운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한 것이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담은 해결책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하는 것도 보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임(최진영 위원)
- 21일 정부, 공공부문, 가계부채 2천조 육박 내용에서 나라 빛이 많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은 바람직한데, 시대별 추이 및 증가 원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 아쉬움. 아울러 2천조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많은지 비교대상이 없었음(이용우 위원)
- 22일 안동권씨 재계 명문가 뜬다는 내용에서 기사의 취지가 뭔지 알기 어려움. 다른 성씨가 재계 주요인사 훨씬 많을 듯 한데 소프트한 기사를 넣는 건 좋지만 보편적인 뉴스가치도 같이 감안해야 할 듯함(이용우 위원)
- 21일 금융지주회장 하루 1천만 원 보도에서 임영록 KB 금융지주회장 등 4개

-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상반기 16억까지 벌었다고 기사화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가 많은 기업의 CEO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을 실적과 보상의 차원에서 봐야지, 나눠가지기 차원에서 보는 것은 사회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함. 아울러 출처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와 직원간 임금격차는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인 듯함(이용우 위원)
- 9월 13일 저녁 스포츠 뉴스에서 골프 예비양 마스터스의 성적을 보도했는데 그 시점에 타 채널에서 3라운드 경기가 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2라운드의 성적만을 보도함. 계속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 결과의 경우 보도 시점에 예민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9월 19일 출발640 아시안게임 결과 전달에 있어 북한 파키스탄 경기 소식을 전달하면서 화면은 북한 중국전을 활용한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 자료화면이라는 것을 꼭 밝힐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8월 28일 10시 뉴스Y 코스피, 코스닥 등 경제지수 관련 내용에서 화면 우측 하단에 신한금융투자 제공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및 원/달러 변동 등 경제 관련 지수가 세로 스크롤로 나가가고 있음. 이와 같은 경제 관련 지수들을 제공사인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경제 관련 지수 들은 실제지수와 차이가 나고 있음(성낙용 위원)
 - 며칠 차이로 정반대의 기사내용이 있었음. 15일 고학력일수록 여성 취업 어려워라는 내용과 23일 20대여성 취업전쟁서 남성에 압승(고학력 덕분 등)내용...아무리 다른 출처 기사라도 매체의 논조 내지 방향이 있어야 함(이용우 위원)

▲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자막 등 개선필요

- 범죄 관련 보도를 하면서 자료화면을 이용할 때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화면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신원이 확인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8월 26일 뉴스다이제스트에서 유대균 관련 보도를 하면서 함께 체포된 박수경씨의 얼굴과 수갑 채운 장면에 대한 자료 화면이 신원 공개 모자이크 처리 등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 피의자의 신원 공개와 관련한 자료화면 사용에 있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9월 20일(토) 클릭 베스트컷에서 등장한 '잘다녀올게요'는 SK 최태원 회장의 둘째딸 최민정씨의 해군사관후보생 입영식을 다룬 내용으로 노소영, 노재현 등의 사진과 너무 장시간 할애가 되었는데 같이 입교하는 다른 후보생이나 현재 군대문제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위화감이랄까 그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음(이용진 위원)
- 뉴스Y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시각 디자인을 세련되게 할 수는 없을까 함. 구성이나 화면구성 디자인이 다소 떨어

지는 느낌이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21일 피케티 한국 친기업정책 바뀌야 할 것 내용에서 피케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국내외에 찬(이코노미스트 등)반(파이낸셜타임즈 등) 논란이 있는 만큼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잡히게 실어야 할 듯. 특히 “공식적인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투명성 확보 뒤 증여세 감세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더구나 공식적인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신분과 상관없이 처벌해야 하는 범법행위를 한 것인데, 이것을 전제로 친기업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이용우 위원)
- 그래프 화면에서 X축 내용이 자막에 가려져 전체화면이 무슨 얘기인지?...자막처리가 미숙하여 알 수 없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이용우 위원)
- 21일 11시 30분 6:25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빠라 변천사 내용에서 북한어로 '전단(선전·광고 등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이)'을 의미하는 “빠라(Pira)”는 일상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단어 이기는 하지만 국내 사전에는 인정하는 않은 순화되어야 하는 말로 분류되어 있음. 뉴스라는 매체의 특성상 올바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표준어 즉 순화된 우리말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임. 뉴스 보도의 헤드라인에서 순화되지 않는 단어를 남용한다면 시청자들에게 문제없이 사용해도 되는 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함(이헌규 위원)
- 25일 뉴스현장13 대통령 유엔무대 데뷔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연예인도 아니고 유엔무대에 데뷔를 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무대와 데뷔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될 일임(강대인 위원장)
- 8월 30일 뉴스에서 하단 가로 자막에 뉴스의 주요 내용을 내보내고 있는데 사건 사고시 보도시 왼쪽 상단에 붉은색 소형 자막을 중복 사용하고 있음. 필요성이 있는지? 자막의 중복 사용으로 효과를 높이기보다는 시청자에게 혼란스러움만 주는 것으로 보임(성낙용 위원)
- 인천아시안경기에 대한 경기결과가 하단자막에 실리는데 아시안경기 내용은 별도로 모아 보여주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음. 지금처럼 다른 속보 사이사이에 배치가 되다보니 집중도도 떨어지고 매우 어수선해 성의가 없는 편집이라는 느낌이 들게 됨(이용진 위원)
- 뉴스속보 하단 자막 처리에 시청자 배려가 필요함. 12일(금) 자막중 '오재성 리베로 최초로 프로배구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이라고 자막이 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구단으로 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으니 '오재성(성균관대) 리베로 최초로 프로배구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 한전행' 이라고 하면 좋을 것이며 또한 같은 날 '프로야구 채병용 12년 만에 완투승 두산은 한화에 역전승' 자막은 '프로야구 SK 채병용 12년 만에 넥센에 완투승, 두산은 한화에 역전승' 이라고 했다면 좋았을 것임(이용진 위원)
- 연합뉴스와의 구조적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하단에 스크롤 자막이 흐르는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실시간뉴스라는 큰 장점이고 그것 때문에 채널을 고정

하는 시청자도 있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묶어서 분류하지 못하고 시차와 팩트가 맞지 않고 있음. 21일 20시 30분에 박태환 결승행 내용이 이미 한시간 반전에 결승이 끝나서 동메달 확정이었음. 이렇게 모순된 내용 편집이 자연스럽지 않음. 구조적으로 임원들에게 건의해서 편집부분은 특정부서가 맡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강대인 위원장)

- 25일 05시 박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기사 내용에서 실시간 뉴스에서는 박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통일메세지 주목이라고 라고 나왔으나 통일메세지는 없었음(강대인 위원장)
- 종편포함 대부분 사업자가 자막이 큼. 음성으로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을 자막으로 달아주고 있어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점과 크기 조절 등을 검토해봐야함(강대인 위원장)
- 자막의 눈높이는 시청자 대부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함. 현재의 자막은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의 눈높이에서 만들지 않나 싶음. 영어나 전문용어 등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말로 설명을 넣는 눈높이를 낮추어 주는 것이 좋을 것(김연화 부위원장)
- 헤드라인의 주요뉴스를 아래 흰자막에 띄우는데 뉴스를 진행하는 중에 속보가 뜨면 붉은 띠로 나옴. 붉은색이 자극적이어서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반복되나와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은 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강대인 위원장)

▲ 보도의 차별성 강화해야

- 글로벌Y의 포맷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음. 현재는 주로 특파원이 단순하게 보도하는데,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와 특파원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뉴스를 전달했으면 함. 또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과 관련된 뉴스가 중요한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Y이라는 제목에 맞게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 기존 내용과 차별화 했으면 함(최현철 위원)
- 뉴스 브런치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왜 뉴스 브런치인지 그 의미가 와 닿지 않음. 뉴스 브런치는 기존 뉴스Y 9의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미디어톡톡 코너가 조금 확대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글로벌Y에서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이 단순한 사건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보도했으면 함. 예전에 한국 주재 미국 특파원은 한국 뉴스는 한국 보도에 의존하는 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낫지 않겠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시각에서 보도한 뉴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고, 보도하기 위해 특파원을 보낸다"고 말했음. 글로벌 Y에서도 우리나라 특파원이 한국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보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최현철 위원)

▲ 프로그램 출연자 등 개선필요

- 뉴스Y에 패널로 참석하는 인물 중 다수가 타방송사에도 출연하여 방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비슷한 포맷으로 진행하는 방송이 많다보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특히, 변호사들의 중복 참석은 식상함이 있음. 정치 전문가들이 아닌 변호사들이 정치 관련 내용의 의견 피력이 자주 방송되어 신뢰감을 떨어지게 할 수 있음. 뉴스Y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고 신선함을 줄 수 있는 패널 발굴이 필요해 보임(성낙용 위원)
- 뉴스 브런치에서 등장하는 패널들의 전문성(변호사가 많이 등장)이 높지 않은 것 같음. 패널의 전문성 정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패널들이 왜 필요한지(또한 선정과정) 이해하기 어려움. 패널들의 분석 수준이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9월 2일 패널들이 한전 전기 얘기에서 패널들이 신문 기사를 보고 “저런 것이 있는 지 처음 알았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최현철 위원)
- 세월호 유가족대표들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참석한 패널들이 각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팩트를 해석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더 심화 시킬 우려가 있음. 그리고 어떤 패널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방송에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모습은 시청하기가 불편했음. 시청자들의 관심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은 중립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방송을 하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프로그램편성 및 기획의견

- 뉴스 시작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타사의 경우 정시04시에 애국가가 나오면서 시작하는데 애국가는 법상 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작하는 시간이 일정해야 시청자를 묶어 놓을 수 있는 편성전략이 될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 예의이기도 하므로 정시뉴스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해 봐야함(강대인 위원장)
- 19일 추석후 과일값 급락 등내용에서 차제에 추석을 10월 중순 양력을 정하자는 기획을 검토할 만함. 추석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비해 지금 여름이 한 달 이상 길어짐. 이에 따라 과일,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추석전후로 급등과 급락 반복해 농민들 고생. 이른 추석에 농산물에 성장촉진제를 써서 국민건강 우려도 있음(이용우 위원)
- 세월호 사건이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송파구 등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싱크 홀, 26일 부산을 강타한 비 피해 등 안전사고가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데 뉴스 와이가 이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 다른 방송은 안전 점검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뉴스 와이도 안전 점검 기획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지금 시골 농촌에는 노인들이 마을 회관에서 공동으로 취사를 하는 곳이 많음.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를 절약 하려고 숙식도 함께 하는데, 농촌 노인들의 겨울 나기 모습 등을 방송하여 외롭게 지내는 농촌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보도를 하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문화프로그램에 인문학이 가미시킨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길 바람. 국민들이 가야 할 방향이 가치관의 혼란크기 때문에 뉴스Y는 모든 위치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서민들이 접할 기회가 많음.
- 우리 생활과 직결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면 어떨까 함. 정보의 오류로 인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에서 바로잡아줘서 과학에 근거해서 편견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 것(김연화 부위원장)

▲ 긍정적인 평가

- 9월 10일 방송중 김근식 경남대 외교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흔들리는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러시아 편들기 나선 북 - 밀월관계 시작', '김정은 러시아 방문계획 추측과 전망- 북러관계 거리 좁히는 속내는?', '미사일 발사관련 북한의 전략', '북중관계의 변화 시점' 등 북한의 내부 사정과 외교 전략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다각도의 분석 등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성낙용 위원)
- 9월 10일 김근식 경남대 외교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프로그램에서 대담하기 전 대담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대담에서 다룬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알려주었으면 하고 북한의 외교 다각화와 관련한 북러·북중 관계, 미사일 발사 문제, 황준석 6자수석 방미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관성을 정리하여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것임(성낙용 위원)
- 8월 28일 10시 뉴스Y에서 유민 아빠' 김영오씨 단식중단, 농성 지속 관련기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의 단식 농성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기사말미에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는 네임 콜을 했는데 단신기사를 묶어서 전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는 네임 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듬. 일반적인 네임 콜인 뉴스와이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았을듯함. 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타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전하는 느낌이 듬(성낙용 위원)
- 8월 22일 뉴스워치에서 교대부근 싱크홀에 차량바퀴가 빠진 사항을 보도하면서 시청자제보 영상을 잘 활용했고 25일 뉴스특보 창원지역 버스 침수 사고 현장 보도에서도 시청자 박규택씨가 보내 온 영상제보를 잘 활용함(양승찬 위원)
- 9월 20일(토) 클릭 베스트컷 '신부들의 질주'라는 컷을 보면서 하반신 마비장애 신부의 재활을 돕기 위한 달리기 대회를 전하는데 마음 찡한 울림이 있는 감동

이 있어서 좋았음(이용진 위원)

- 9월 20일(토) 미니다큐 오늘은 가을에 여행이라는 식상한 편집일 수 있으나 기차여행이라는 포커스를 맞추어 차별성을 두었고, 내용도 차별하게 추억을 되새기며 기차여행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기분이 좋았음(이용진 위원)
- 8일 17시 뉴스에서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심속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재해가 주목받고 있음. 최근 석촌호수 부근과 제2롯데월드 현장 부근에 싱크홀 전조 증상이 발견된 것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문제임. 「뉴스초점」은 '싱크홀' 안전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8월(8. 23, 8. 26, 8.28, 9.4) 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옴. 이는 안전 및 예방에 대한 국민적 환기를 해주어 보도 채널로서 아주 바람직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됨. 또한 매번 전문성이 부족한 패널에 대한 지적이 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 現 싱크홀 조사단장(박창근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이 출연하여 싱크홀 현상 및 예방,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적 견해가 돋보였음(이헌규 위원)
- 17일 22시 30분 뉴스리뷰 강남, 은평 기온차 8도 도시 열섬원인 내용 중 도시에서 일교차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도시 열섬'이 원인이라는 뉴스를 기상 전문기자가 전달하여 이색적이었음. 같은 서울 지역에서 건물 밀집된 지역인 강남, 구로는 기온차가 7도 이상 벌어진다는 사실과 그것이 열섬 현상과 관련 있다는 과학적 상식도 알려주어 천편일률적인 예보의 형식을 벗어나 이런 뉴스 구성은 좋은 시도로 보임(이헌규 위원)
- 6일 미니다큐 오늘 제43화 더불어 소통하는 즐거움, 아파트 공동체 내용에서 오늘날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등 삭막한 아파트 문화를 주민들이 소통하고, 살림에 지해도 배우고 함께 가꾸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음(김용주 위원)
- 9.25. 오전. 이재동 사회부 기자가 대포통장 1만개 유통 단속 보도를 함. 범행 압수수색현장을 매우 생생하게 보도한 것이 상당히 신선하고 사건 이해에 큰 도움이 됨.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수사 경찰의 현장 진술, 경찰서에서의 피의자 진술, 그리고 경찰서의 중간 수사 발표 등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보도된 점도 시청자 입장서 돋보임. 기자 리포트시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계속 추적중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후속보도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됨. 전체적으로 범죄수사 보도에 관한 모범적인 예가 된 것으로 평가함(최진녕 위원)
- 24일 모닝Y 시리아 공습관련 뉴스에서 중동전 역사내용이 사례별로 나열해서 소개해줬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시리아폭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도였음(강대인 위원장)
- 24일 10시30분 맹찬형의 시사터치 뉴스초점 중동전관련내용을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등 중동전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 가지 복합적

으로 분석해서 유익했음(강대인 위원장)

▲ 기타 의견

- 시청자들이 주요 뉴스 제보를 뉴스와이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등이 필요함. 동영상 보내는 이메일 주소가 yjebo@yna.co.kr 로 되어 있는데 뉴스와이가 강조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음. 특정지상파의 경우 시청자 제보 뉴스를 중심으로 연말에 좋은 뉴스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뉴스와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이전에도 특파원이 전달하는 리포트의 음향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9월 4일 글로벌투데이 도쿄특파원의 리포트는 일반적인 음향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발생. 에코가 많이 나는 현상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 (끝)